

새 도로명 주소 전면 폐기하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가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새 도로명 주소가 국민들의 정서와 전통적 삶의 방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계종 문화결사위원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우리글진흥원 등이 참여한 '우리 땅이 지키기 시민모임'은 7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도로명 주소, 전면 폐기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국가가 길을 중심으로 주소명을 부여해 국민의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변경하겠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대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길을 중심으로 한 새 주소가 일부 외국의 평지처럼 국가에 합당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새 도로명 주소는 이름뿐 도입 기대효과 주장 잘못 시행하면 국민 부담 가중

그럼에도 행안부는... 29일부터 전면 시행 연내 공적장부 변경기료

행안부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물류비 절감과 지번 주소의 불편이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황 소장은 "현행 지번 주소는 전국 약 70%가 구릉지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팽창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평우 소장은 "한국의 지명은 터를 중심으로 존재성과 정체성이 부여됐다. 새 도로명 주소를 원점부터 재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했다. 사업을 준비해 온 15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기대효과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길 찾기 비용 절감효과'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특히 양영채 사무총장은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은 기대효과만 있을 뿐 총비용과 손실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도로표지판·주민등록증 교체 등 200여 가지를 수정해야 한다. 민간에서도 명함 및 지도 제작 등 막대한 비용이 국민 몫으로 남게 된다.

양 사무총장은 행안부의 '새주소 업무편람'에 나타난 기대효과도 산출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새주소 업무편람에는 방문자가 길을 찾는데 소요한 시간 비용이 1조 7980억원, 문의음 전화통화요금이 6303억원, 차량 유틸비용 6014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양 총장은 이 수치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양영채 사무총장은 "문의음 통화 6303억원은 3사 전체 통화요금의 17% 수준이다. 5통 중 1통은 위치 문의 전화라는 말인데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헤일 스님은 "이번 사업으로 사라지는 불교 지명은 200개 정도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라질 4만 여개의 지명과 거기에 담긴 역사와 문화가 단절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이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행사 후 황평우 소장과 양영채 사무총장은 새 도로명 주소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행안부는 방문한 자리에서 실명을 밝히기를 거부한 지방행정체제 개혁의 한 사무관은 "언론 촬영에 동의할 수 없다. 기사를 제외한 대 표자 한 명만 사무실로 가져"고 밝히려 할 때 불협화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황 소장과 양 사무총장은 '사실상의 항의서한 수령 거부'로 이해 하겠다고 행안부를 나섰다.

토론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인 28일,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새 도로명 주소를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한 기간 더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삼걸 차관보가 "새로운 주소체계가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을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기범 기자



"연꽃 보러 왔어요"

조선의 문신이자 농학자였던 강희맹(姜希孟:1424~1483)이 명나라에서 가져온 연꽃씨를 심었던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 주변 연밭에 연꽃이 만발했다. 불자들의 가슴에 늘 피어 있는 연꽃.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연꽃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잠시 날이 개인 틈을 타 유치원 아이들이 연꽃을 보러 나왔다. "우리도 연꽃 보러 왔어요" 박재원 기자

이 책에 사라질 불교 지명이 담겨있다

알음알이로만 알고 있던 불교 지명들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됐다. 새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불교지명이 사라진다고 경종을 울렸던 박호석 법사는 최근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지명 사전>(불광출판사)을 펴냈다. 불교 지명을 정리한 책으로는 최초이다.

책에는 박 법사가 4년 동안 전국 향토문화원과 문서자료를 조사해

정리한 540여 불교지명과 630여 상용어가 수록됐다. 박호석 법사는 "지명은 우리가 사는 터전의 이름으로 가장 오래된 상용어이자 지켜야 할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며 "불교지명을 찾아내 알리고 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법사는 7월 25일 간담회에서 "조계종 문화결사위원회 등이

주최한 새 도로명 주소 관련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내가 총무원을 거세게 비판해서 배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지명 사전 | 박호석 편저 | 불광출판사 펴냄 | 3만원 | 조동섭 기자

새 도로명 주소... "교회도 난감하다"

새 도로명 주소 사업을 두고 불교계뿐만 아니라 개신교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삼성동 41-3번지" 주천양교회가 7월 29일부터는 '봉은사로 63길 27'을 법정 주소로 쓰야한다"고 27일 보도했다.

김문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는 "삼성동도 잘 알려진 명칭인데 굳이 봉은사로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길 이름을 사찰명으로 하면 기독교는 곤란한 게 사실"이라

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일보도 "새 주소를 놓고 개신교계 반발이 거세다"고 보도했다. 조동섭 기자



"여름 휴가는 범주사 템플스테이로"

"(울여름) 충북 보은의 범주사에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7월 25일 제70차 라디오 국정연설에서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범주사 템플스테이를 추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범주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올레길·둘레길 등 생태관광길 >부산자갈치 시장 등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 '요즘'은 누구입니까?

- 태안사 원각선원장 일오 스님



제847호 2011년 8월 3일 수요일 (음력 7월 4일 · 불기 2555년 · 주간)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마음공부

여름특집 본지 6주간

한마음과학원과 공동기획

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고 www.hannamu.com)

#어떻게 따라하면 되나요?

일명 '지하철 막말남', '지하철 할머니 폭행', '경희대 막말남' 등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사회, 자아에 대한 고민할 시간 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의 결과"라고 진단한다.

본지와 한마음과학원(원장 대행)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6회에 걸쳐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마음공부' 코너를 연재한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마음공부'는 본지를 활용해 한마음과학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한나무 인성교육'과 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 (학지사)를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나무 인성교육은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인성에 대한 성찰에 기초해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나를 이해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주변과 조화롭게 공생하는 인성과 태도 양성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은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존재로 본다. 따라서 무엇을 배우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완전함과 자유로움을 온전히 갖춘 '참된 나'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자유하게 살고 있는지를 자각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움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고 www.hannamu.com)

#체습수기를 보내주세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마음공부'를 가정에서 직접 실천한 분들, 또는 기사를 통해 새롭게 인식한 내용이나 소감 등을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독자들에게는 인성교재 '꽃을 피우는 나무' 초·중등용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bohyung@buddhapia.com

847호 CONTENTS

상반기 결산 사찰⑩ 순천 선암사	3
현장속으로 울릉도 독도음악회+회당축전	5
특집 · 석굴암	11~13
법향을 찾아서 BBS불교방송 법원 스님 법문	14
문화 중광 스님 전시회	21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극락왕생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중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인등용 LED전구)